

늙은이와 젊은이의 대화



유 경 희

10년전까지만 해도 젊은이들이 “꼰대”란 말을 잘 썼다. 이 말은 ‘자기고집만 부리고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나이든 사람’을 빗대서 쓰는 말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컴퓨터로서 글도 쓰고 통신도 하는 사례가 많아지자 “꼰대”란 말도 사라지고 있는게 아닌가 싶다.

사실말이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손녀들과 대화를 할 때, 가장 자존심 상하는 말로

약력 : •94~95 (주)삼보정보통신 상임고문 •95~96 (주)한통엔지니어링 상임고문 •96~98 (재) 한국정보유통센터 회장 •98~현재 인터넷 집현전 회장 • 한국정보처리전문가협회 지문위원

“할아버지, 그것도 몰라요?”, “할아버지는 모르셔도 돼요” 등과 같은 말이 있다. 어느 할아버지는 이런 말은 현대판 고려장이 아니냐고 항변하는 말을 들은 적도 있다.

특히 손자와 할아버지가 함께 컴퓨터를 쓰면서 배우는 숨씨가 손자쪽이 월등해서 금방 할아버지를 앞지른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배우려고 하면 손자가 할아버지의 자존심을 여간 상하게 하는게 아니다.

“그것도 몰라요? 이제 막 가르쳐 드렸잖아요? 또 잊었어요?”

구수한 옛날 이야기로서 손자들을 사로잡으면 될게 아니냐고요? 천만의 말씀이다. 우선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내용은 재미가 있어도 이야기 전개가 너무 지루하다. 그러면 당장 부정적인 반응이 보인다. 미처 이야기의 줄거리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손자녀석이 “. . . 그래서 나쁜놈은 죽고 주인공은 잘사는 거지요?”라고 앞질러 결론을 내어버린다. 할아버지는 허탈해진다.

통신에서는 말하는 사람(송신자)과 듣는 사람(수신자)이 있다. 송신자가 말하는 동안 수신자는 듣기만 해야지 수신자가 말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 할아버지들의 통신에 관한 상식이다. 이러한 통신방식을 모노플렉스(Monoplex)라고 한다. 그러나 요즘 통신에 익숙한 아이들은 송신자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 않는다. 말하는 도중에 자꾸 끼어들고 싶어한다. 이것을 막으면 그만 대화가 끊어진다. 송신

자가 송신을 하는 동안에도 수신자도 송신을 할 수 있는 통신방식을 듀플렉스(Duplex)라고 한다. 말하는 사람이 중간중간에 듣는 사람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대방의 송신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알겠냐?”라는 말에 대해서 수신자는 “예”라고 짧게 대답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신방식을 하프듀플렉스(Half-Duplex)라고 한다.

나이가 들수록 모노플렉스를 좋아하고 젊을수록 듀플렉스를 좋아한다.

나이든 한국사람은 문장별 대화를 좋아한다. 일본 사람들은 구문별로 대화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일본사람과 대화를 할 때는 중간중간에 “하이, 하이”란 말을 해주어야 상대방이 말을 계속한다. 요즘과 같은 세상에서는 모두 단어별로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다. 특히 어린 아이들은 문장별 대화를 모두 지루하게 생각한다. 어느것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대화의 방식도 시대에 따라 변하는가 보다.

한번은 미국의 어느 커피숍에서 우연히 들었는데, 수다쟁이 여자 두 사람이 말도 빠르려니와 둘 다 동시에 말하기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둘다 동시에 알아들으면서 하는 대화였다. 웃을 때는 소리내어 웃고, 슬플때는 서로가 슬픈 표정을 짓는 걸로 보아 말하는 기능과 듣는 기능이 동시에 가동되어도 서로가 완벽한 대화를 할 수 있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것을 필자는 두 수다쟁이가 풀듀플렉스

(Full-Duplex)로 통신을 한다고 표현하여 보았다.

“지난번 초상때 제대로 인사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말하자

“아니올시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마음을 써 주셔서 무난히 대사를 마쳤습니다. 모두 염려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대답한다. 아마도 가장 일반적인 대화일 것이나 젊은이들에게는 맞지 않는 대화이다.

어느 대학생에게 필자가 말을 걸었다.

“식사했어요?”라고 하면서 ‘먹었어요’ 라던가 ‘아직 못먹었어요’ 라던가 하는 대답을 기대했는데 전혀 뜻밖의 대답이 나왔다.

“안 먹었으면 사 주실래요?”였다. 한칸 건너서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마저 해버린다. 요즘의 대화는 이런식이다. 이런 젊은이들에게 어떠한 할아버지 이야기가 알맞을까? 같이 한번 생각하여 봅시다.

...